

전진바이오팜, 10억원규모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및 용품류 공급계약

- ▶반려동물 전용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 '네이처플랜' 판매개시
- ▶천연 소재 기술 접목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용 사료 판매개시 시장 진입 본격화



▶ 사진자료: 네이처플랜 반려견 ·묘 전용 프리미엄 사료 6종

<2022-07-04> 전진바이오팜(주)(대표이사 이태훈, 110020)은 포파코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 및 반려동물 용품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04일 공시했다.

'네이처플랜'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네츄럴 레시피를 제안하는 프리미엄 사료 전문 브랜드로 전진바이오팜과 포파코의 반려동물용품 공동브랜드 '페디칼(pedical)'의 첫 사료 브랜드다.

'네이처플랜'의 첫 제품은 반려견 사료 4종과 반려묘 사료 2종으로 구성된다.

반려견 기능성 사료 4종(관절건강, 피부·모질, 눈건강, 체지방 감소)과 반려묘 기능성 사료 2종(헤어볼관리, 체지방 감소) 모두 반려견·묘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기능별로 선택하여 급여할 수 있다.

해당 사료는 전진바이오팜과 포파코가 함께 특허 출원한 치아시드 추출물(연어의 9배에 달하는 오메가3)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브로콜리, 당근, 유카추출물 등 다량의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이 첨가되어 있다.

또한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반려견·묘에게 위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첫 성과물인 프리미엄 사료 네이처플랜 판매를 시작으로 연구개발을 마친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먹거리인 수제 간식, 화식, 테린, 죽, 탕 등 다양한 먹거리와 더불어 가성비를 생각한 보급형 대용량 사료 또한 올해 하반기 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진자료: 출시예정 프리미엄 먹거리와 대용량 사료 (좌측부터 워너밀, 튼튼바, 헬시온 대용량 사료)

한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33.4%)와 '간식비'(17.8%)로 식비 관련 지출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소에서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4조1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약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동반자로 여기게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전진바이오팜은 반려동물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반려동물에 특화된 프리미엄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포파코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천연소재와 제형기술을 활용해 유해 생물 피해 감소제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처플랜 사료는 온라인 및 폴리파크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입고 및 판매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필요영양에 따라 기호에 맞게 구매 가능하다.

▣ 자료문의

전진바이오팜(주) 문석준 차장 053-593-7192/ sjmoon@jjbio.co.kr